

#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역대하 28:9-15, 찬송가 460장

##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 성경읽기

### 새번역 성경

9 사마리아에 오벳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10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11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 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자매이니, 곧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요.” 12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므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13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이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14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15 사람들이 위의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

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햇빛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은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 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 개역개정 성경

9 그 곳에 여호와와 선지가 있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10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12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므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1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14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 3 본문 설명

하나님의 예언자 오벳은 승리한 북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같은 민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포로로 끌고 가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 말하며 훈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오벳 예언자와 같은 말을 하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군인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 포로들을 풀어 주어 유다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끝까지 고통스럽게 놔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참 이유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어느날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이름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 4 삶의 나눔   5 함께하는 기도
-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본문 요약

### One-Point 목상

1 목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